



## 산업표준화법 전면개정

기술표준원은 '61년 「공업표준화법」(현 산업표준화법)제정 이래,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 제도를 통하여 그간 기업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 우리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표준개발에 인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을 전면 개정('07.5.25 공포, '08.5.26 시행)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은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KS로 인증도록 하였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협회·학회 등 표준개발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국가표준 개발기관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민간이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에서는 다양한 민간 표준수요에 보다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 시상식



기술표준원은 콘크리트 관련 기술인들의 사기를 신장하고, 품질향상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콘크리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입상 20개팀(일반부 10팀, 학생부 10팀)과 콘크리트산업발전기술유공자(12명)를 선정하여 6월 25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금년도 기술경연대회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강창운(쌍용양회공업(주)) 부장의 경우 30이년간 콘크리트 기술분야에서 천인 대리석 수준의 칼라 콘크리트, 마감이 필요 없는 노출콘크리트 등 신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전파를 위해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되어 최고의 콘크리트산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었으며, 기술 및 품질분야의 기술경연대회에서는 일반부의 (주)금성네트(금성네

트튜), 학생부의 공주대학교(콘돌이튜)가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여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금년도 대회의 특징은 유공자 및 품질부문 외에 콘크리트 생산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한 혁신부분을 신설하였고, 보다 진보된 콘크리트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혁신기술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변화의 가능성을 선보였으며 대학생(건축·토목분야)이 참여하는 학생부 내회는 전년보다 호응도 및 기술력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콘크리트 산업발전에 청신호라는 평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금년 5회째를 맞는 정연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콘크리트 기술인들의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정부포상을 상향·확대하고, 본 대회가 콘크리트산업 발전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세계 인정의날 기념 세미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기술장벽,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는 6월9일을 세계인정의 날(International Accreditation Day)로 정하고 2008년 주제를 신뢰(Trust)로 정하고 국제공인 인정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기술표준원은 ILAC/IAF가 지정한 '세계인정의 날'을 맞아 인정제도의 중요성과 위상제고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행사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ILAC : 국제 시험기관 인정협력체,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 IAF : 국제인정기구포럼,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주관으로 2008 세계인정의 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인정 전문가와, 산업체, 공인시험기관 관계자, 평가사 등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ILAC/IAF에서 지정한 올해의 '신뢰(Trust)' 주제는 글로벌 무역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신뢰도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세계 49개 국가가 운영하는 시험인정기구(한국:KOLAS)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조직, 전문가, 프로세스 등을 근간으로 전문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 신뢰도 확보 되었다.

한편 고객의 요구사항, 국민의 건강, 안전과 공익보호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 세계 자유무역의 기본인점을 인식하여 인정관련 규정과 절차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방식이 강조되었다.

- \* KOLAS :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이번 세미나에 국제기구의 국제 전문가의 인정의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 국제공인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국내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주)오뚜기가 신뢰성이 확보된 KOLAS 국제공인시험 성적서로 유럽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와 KOLAS 현장평가 기본방향 및 국제 부합화, 정부에서 국제동향 변화에 따른 KOLAS 인정제도 운영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제1회 세계인정의 날 기념을 통하여 산업성장과 함께 시험인증을 지

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성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게는 신뢰성있는 시험성적서로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 사우디와 시험인증결과 상호인정 협약 체결



앞으로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인증서만 있으면 곧바로 사우디에 수출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ASO 인증제도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있어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유통이 가능했다.

· SASO(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 표준청

### 〈사우디 SASO 인증제도〉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물론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우디 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SASO 인증기관 : 사우디 표준청(SASO)은 InterTek, SGS, TuV 등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08년 6월 12일(목),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청장 Mr. Nabil A. Molla)과 시험인증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1)을 체결하였다.

\*) Mutual Recognition Program on Certificates of Conformity and Quality marks.

기술표준원 및 사우디 표준청(SASO)이 각각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상대국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는 복잡한 추가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로서는 중복시험 비용을 통한 시험비용 절감 및 인증에 필요한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본 협약이 사우디 수출을 촉진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LAS 시험기관과 전기용품 및 공산품 분야 등 주요 수출분야의 시험인증기관을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품인증기관으로 우선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기표원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우디와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이 필요한 분야로 본 협약의 이행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 '08.6현재)

| 구분           | 분야        | 해당국가(연도)                          | 체결단계  |
|--------------|-----------|-----------------------------------|-------|
| APEC-TF1 MRA | 정보통신      | 캐나다('97.1), 미국('06.5), 베트남('06.1) | 시험성적서 |
| MRA(한-싱가포르)  | 전기안전, EMC | 싱가포르('06.3)                       | 제품인증서 |

## 제지기술 표준화 국제총회

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종이, 판지 및 펄프 기술 총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스웨덴, 영국, 중국, 일본 등 31개국에서 전 세계 제지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종이 및 판지의 '백색도 시험방법 관련 표준' 7종과 물리적 특성인 '가속 노화 시험방법 관련 표준' 17종 및 '펄프의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방법 관련 표준' 2종 등 20여종의 표준 제정 및 신규 제안된 다수의 표준이 논의되었다.

또한, 금번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추출액에서 오염화석탄산의 측정 방법 표준' 및 '미세균 균판지의 평면압축 강도 측정' 국제표준안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지산업의 위상은 2006년 생산량기준 세계 8위, 국민경제상의 위치는 제조업 비중 생산량 0.84%, 고용 비중 0.6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번 새롭게 제정된 표준을 통해 종이 및 판지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해 온 연구 결과를 국제 규격에 접목시키고 우리나라 제지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범죄예방 도시공간 설계기법 표준화

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취약공간을 사전에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CPTED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금년 중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시민의 가지권을 최대한화하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
- 범죄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접근통제
- 범죄행위가 노출되도록 CCTV 등 다양한 수

단에 의한 기계적·자연적 감시 및 은폐지역과 함정지역의 제거

- 범죄자가 잠재적 피해자의 동선을 예측하여 잔복·은닉하지 못하도록 동선예측 가능 구조의 제기
- 범죄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경로의 확보
- 도시시설물의 모양과 색 등을 범죄예방적으로 설계등의 범죄예방적 기법을 도시공간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이를 위하여 경찰대학,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의 국내 범죄학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지난해부터 'CPTED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3월에는 非EU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럽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에 국제옵저버(International observer) 자격으로 참석(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하는 등 CPTED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CPTED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6월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신진기술의 소개와 국내 사례연구를 위해 영국 CPTED학회장 Calvin Beckford(영국)와 유럽표준화기구의 CPTED 기술위원회 위원장 Paul van Soomerem(네덜란드) 등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하였다.

## 부산디자인센터와 MOU 체결

기술표준원은 6월 26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원장 박수철)와 색채표준정보의 공동 활용 및 색채·디자인 산업 기술개발 등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기술표준원

의 색채표준 정보를 환용하여 기술표준과 디자인을 통한 국민의 편의향상과 안전한 환경조성 및 색채·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03년도부터 색채관련 KS 정비를 시작으로 한국표준색표집, 한국표준색이름 통합본, 표준색이름 디지털팔레트 등을 제작·보급하는 등 국가 색채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07년도에 "색동코리아"라는 로고를 신청하여 국가 색채표준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는 '07년도 4월 지식경제부, 부산시 등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 디자인 교육, 지역특화 디자인 혁신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MOU 체결로 국가 색채표준의 확산 및 색채·디자인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세미나

기술표준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국내 대응 전략에 대한 표준화 세미나를 6월 4일(수) 부산 파라디이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표준화사업 추진현황, 표준화 정책 및 인증제도, 국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태양광분야는 국제인증제도와 태양광시스템의 표준화 동향

-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수소제조기술 및 가전제품용 마이크로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의 표준화 동향
- 풍력분야는 해상풍력과 풍력발전기 부품관련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국제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설비 품질 기준의 강화 등에 대한 정보는 관련기업, 연구기관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초기에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이 미흡하였으나, 최근 "태양광발전용 집속함" 및 "풍력발전 부품인증" 등 국제표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뢰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올해부터는 인증을 획득한 설비만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어 현재 많은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고 있다.

태양광 등 6개분야 16개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분야 7품목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총 46개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다.



| 기술표준 2008.7